

## 추모사

오늘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이시며 우리 종단 청정의 기틀을 세우신 청담대종사 열반 41주기 추모다례에 추모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사상과 문화의 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삼국 및 고려시대를 지나며 찬란한 문화를 창달해왔고, 조선조 500여년의 억불정책의 박해에서도 서릿발 같은 불조의 해명을 면면히 이어 왔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훼손된 굴절의 시기였기에 선각자들은 조국광복과 불교의 정통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의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원력으로 용맹정진하신 청담대종사의 선업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비보살이자 인욕선인(忍辱仙人)으로서 육도행(六度行)을 철저히 실천하신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원력행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계가풍을 세우는 큰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통합종단 이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대중화에 진력하시고,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선도적인 실천행을 몸소 보여주신 선지식이셨습니다.

‘중생제도를 위해 성불도 한생 미루겠다.’ 시던 스님의 원력을 이어 혜성스님과 현성스님을 중심으로 한 청담문도회 스님들과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 등을 통해 대사회적 역할을 곳곳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봉행한 ‘농촌사랑 나눔 봉사 한마당’은 큰스님의 뜻을 실천에 옮긴 현시대에 적합한 또 하나의 불사였으며, 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행사였기에 불교계를 넘어서는 사회적으로도 뜻 깊은 축제였습니다.

이는 청담스님의 가르침을 후학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는 증명이며 스님의 원력과 사상이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화현하시어 불자들에게 가피를 주시고 모든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청담대종사 열반 41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선업을 현시대에 실천하는 청담문도회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수행자의 모습을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지, 큰스님의 대원력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